

2015 국가직 7급 국어(2015. 8. 29.) 해설 및 총평

혜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번호	내용	범위	번호	내용	범위
1	합성어	문법	11	한자어	한자
2	동사	문법	12	맞춤법	문법
3	비문	비문학	13	문장성분	문법
4	높임	문법	14	피동 표현	문법
5	의미론	비문학	15	시조	한문/문학
6	뜻풀이	어휘	16	띄어쓰기	문법
7	현대시의 이해 - 이성부, <봄>	문학	17	상황 추론	비문학
8	중심 내용	비문학	18	현대시의 이해 - 박남수, <새>	문학
9	내용 삽입	비문학	19	접속어	비문학
10	일치, 불일치	비문학	20	한자성어	한자

2. 분야별 분석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및 한자
7(35%)	7(35%)	3(15%)	3(15%)
단답형 지식 문제		박스형 지문 및 이해	
9(45%)		11(55)%	

3. 전체 총평

1. 최근 시험의 추세와 같이 비문학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고 지문의 길이도 전반적으로 길어져서,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고득점의 관건이 되었으리라 예상한다.
2. 국어 전 범위에 걸쳐 고르고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문법, 비문학, 어휘, 한자어, 한문, 현대문학, 고전문학 등에 걸쳐 고른 문제 출제의 빈도를 보였다. 수험생들에게 전 영역에 걸친 고른 학습을 요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국어의 영역을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단답형 지식 문제에 비해 박스형 지문 및 이해 문제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해와 적용이 시험의 고득점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이해와 적용의 연습이 필수적임을 일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 단순한 지식문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암기를 묻는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속적으로 적용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5. 수업에서 다룬 영역들과 지문이 빠짐없이 언급되었다.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더불어 마무리 특강에서 다룬 유형들 또한 모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되어 마무리 정리의 중요

성 역시 절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강력히 바란다.

문 1.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흔들바위, 콧감
- ② 새언니, 척척박사
- ③ 길짐승, 높푸르다
- ④ 어린이, 가져오다

-정답 : ④

-[해설]

- <어리-+ ㄴ+ 이>: 형용사 ‘어리다’의 관형사형에 지시대명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관형형 어미를 취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가지-+ -어+ 오다>: 동사 ‘가지다’와 ‘오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연결어미 ‘-어’가 붙어 연결되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합성어의 ‘비통사 관계’는 ① 어미의 생략 ② 부사 + 명사의 결합이다. 따라서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오답 정리]

- ① • 흔들바위(흔들+ 바위): 부사 ‘흔들’이 명사 ‘바위’가 결합한 형태이다.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콧감(콧-+ 감): 용언의 어간 ‘콧-’에 명사 ‘감’이 결합한 형태이다. 연결어미 없이 바로 연결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 새언니(새+ 언니): 관형사 ‘새’와 명사 ‘언니’가 결합한 형태이다.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척척박사(척척+ 박사): 부사 ‘척척’과 명사 ‘박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 길짐승(길+ 짐승): 명사 ‘길’과 ‘짐승’이 결합한 형태이다. 국어에서 ‘명사+ 명사’의 결합은 통사적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 c.f. 날짐승(날 + ㄹ + 짐승): 앞의 용언 어미 ‘다’ 자리에 ‘ㄹ’이 결합한 형태로 보아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 높푸르다(높-+ 푸르다): 형용사 ‘높다’와 ‘푸르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연결어미 ‘-고’ 없이 바로 연결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문 2. 밑줄 친 단어 중 동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수수 는 가만 두어도 잘 큰다.
- ㄴ. 이 규칙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ㄷ. 그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높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 ④

-[해설]

- ㄱ -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가능한 낱말로 품사에 따라 그 뜻이 다르다. 문맥상 <자라다>의 의미이므로, 동사이다. 동사에만 활용 가능한 어미 ‘-ㄴ다’의 현재 시제가 붙어 있는 것도 힌트다.

[어휘] 크다

1. 형용사 -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옷이 크다.

2. 동사 -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키가 자라다.

[예] <보통 이상이다>를 의미할 때는 형용사, <자라다>를 의미할 때는 동사이다.

- ㄴ - 보조용언 <않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가능한 낱말로,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보조용언 ‘않다’의 품사가 결정된다. 본용언은 ‘중시하다(=중대시하다) - 중시한다 - 중시하는(동사적 활용 가능)’로 동사이므로, ‘않은’의 품사도 동사이다.
※ ‘않다’가 <어떤 행동을 안 하다>의 의미일 때는 본용언으로 항상 동사이다.
※ 보조용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의 품사는 본용언에 따라 결정된다.
- ㄷ - 반의어인 ‘젊다’가 형용사인 것과 달리 ‘늙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문 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실히 논의해 왔다.
- ②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 ③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는 고화질의 화면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 ④ 지금까지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정답 : ②

-[해설]

-[오답 정리]

① 가능한 충실히(X)→가능한 한 충실히(O)

- ‘가능하다’의 관형사형 ‘가능한’은 부사 ‘충실히’를 수식할 수 없고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존명사 ‘한’을 필요로 한다.

③ <고화질의 화면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X).→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O)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 <A는 물론 B = A와 B>의 구조로 서술어 ‘얻을 수 있다’와 연결된다. 즉 ‘고화질의 화면’

과 ‘다양한 정보’의 목적어가 서술어 ‘얻을 수 있다.’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목적어 ‘고화질 화면’과 서술어 ‘얻을 수 있다’의 호응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어울리는 서술어 ‘볼 수 있다’로 교체해야 한다.

④ <되었다는 생각이다→ 되었다.(O)> : 서술어 ‘생각이다’와 부사어 ‘지금까지는, 이제는’이 호응하지 않는다. 더불어 ‘생각이다’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도 없다. 따라서 삭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혹은 우리가) ~ 회피했다./ 이제는 (내가 혹은 우리가) ~ 때도 되었다.’

문 4.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집에 가시는군요.
- ② 당신은 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군요.
- ③ 이것이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던 벼루입니다.
- ④ 우리 사장님께서 뵙기를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정답 : ②

[해설]

<말씀>은 높임과 낮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나’의 낮춤말 ‘제’와 함께 쓰인 ‘말씀’은 옳바르다.

[오답 정리]

① 집에(X)→**댁**에(O)

- ‘집’의 높임말은 ‘댁’이다.

③ 아끼던(X)→아끼**시**던

- 높임의 대상은 주어 ‘당신’이다. 따라서 이에 맞춰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야 한다. 더불어 문맥상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였다. 다만 ‘당신’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심화 학습] **당신**(대명사)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예 당신은 왜 이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예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3.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예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4. **3인칭 재귀대명사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

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④ 뵙기를 청한(X)→뵙기를 청하**신**(O)

- 문장의 주어는 높임의 대상인 <우리 사장님>이다. 이에 맞춰 서술어에도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야 한다.

문 5.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회초리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다.

- 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 ② 금 간 자리를 흠으로 말끔히 메웠다.
- ③ 그는 적성에 맞는 자리를 구하고 있다.
- ④ 방이 좁아서 책상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

-정답 : ②

-[해설]

<보기>의 ‘자리’는 <흔적>의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②이다.

-[오답 정리]

① <지위>, ③ <일자리>, ④ <공간>의 의미이다.

[어휘] 자리(명사)

- 1.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④)
- 2.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난 후 남은 흔적. (②)
- 3.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비나 지정한 곳. 예 자리를 양보하다.
- 4. 일정한 조직체에서의 직위나 지위. (①)
- 5. 일정한 조건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 흔히 일자리나 흔처를 이른다. (③)

* tip!

‘체언’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용언’이다. ‘맞은’을 각각의 선택지에 대입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②가 된다.

문 6.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나는 구두를 벗으면서 ‘죽었으면 나 안 가기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더러 나오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불뚝하는 심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돈은 그달 학비까지 ㉡얼려서 백 원이나 보내왔다. 병인은 죽었든 살았든 하여간에 돈 백 원은 반가웠다. 시험 때는 당하여 오고 ㉢미구에 과세(過歲)를 하려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환이 있는 집에다 대고 철없이 돈 청구만 할 수도 없어 걱정인 판에 마침 ㉣생광스럽다.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① ㉠: 갑자기 화가 나는
- ② ㉡: 무턱대고 요구하여서
- ③ ㉢: 오래지 않아 설을 쇠려면
- ④ ㉣: 아쉬운 때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

정답 : ②

[해설]

*tip! -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문맥의 의미 파악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의 ‘어르다’는 ‘어우르다’의 준말로 ‘어르다 - 어르니 - 얼러 - 얼러서’로 활용이 된다. ‘어르다’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크게 되게 하다.’의 의미로 문맥상 <학비까지 함께 백 원이나 보내왔다>란 의미가 된다. 따라서 <무턱대고 요구하여서>의 뜻풀이는 바르지 않다.

[오답 정리]

- ㉠ 불뚝하다: 무뚝뚝한 성미로 갑자기 성을 내다.
 심사(心思) 1)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2) 마음에 맞지 않아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
- ㉡ 미구(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과세(過歲): 설을 쇠다.
- ㉢ 생광스럽다 1) 영광스러워 체면이 서는 듯하다.
 2) 아쉬운 때에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

문 7. 다음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줌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시적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시적 대상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③ 시적 대상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시적 대상을 통해서 순리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 ②

[해설]

시적 대상인 ‘봄’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오기 때문에, ‘무력감’과는 거리가 멀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나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는 표현은 시적 대상 ‘봄’에 대한 ‘무력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봄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것이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었음을 표현한 구절이다.

[오답 정리]

- ① 시적 대상인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닌 <현재는 부재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가치>를 상징한다.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으면 <민주,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온갖 역경, 더러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오는 <봄>’에 대해 예찬적 태도(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를 취하고 있다.
- ④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순리이다. 이처럼 시련이 지나면 승리, 자유가 올 것이라는 신념을 화자는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오는 ‘봄’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심화 학습] 이성부, ‘봄’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희망적
- 제재 : 봄
- 주제 :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
- 특징 ①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문 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Sino-Korean’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학교’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것이 ‘xuéxiào’나 ‘がっこう’인 줄을 알아차리기는 힘들다.

- ① 한국 한자음의 특성
- ② 한국 한자음의 역사
- ③ 한국 한자음의 기원
- ④ 한국 한자음의 계통

-정답 : ①

-[해설]

※tip! - 중심 내용은 중심 문장을 찾으면 쉽게 해결된다.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이 중심 문장이다. 즉 한국 한자음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 한국 한자음의 특성’이다.

[오답 정리]

㉢ 한국 한자음의 기원이 어딘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초반에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한국 한자음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할 뿐, 중심 내용이 아니다.

문 9.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형은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구경하던 후궁들에게 윙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인형의 추태에 화가 난 목왕이 그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했고 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

(㉠) 어느 날 서쪽 지방으로 순행을 나간 목왕은 곤륜산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를 만났다. 목왕은 그 기술자에게 그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목왕이 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묻자, 그는 이것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답했다. (㉡) 이에 놀란 목왕은 그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장육부는 물론 뼈, 근육, 치아, 피부, 털까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목왕은 그에게 “자네 숨씨는 조물주에 버금가도다!”라고 크게 칭찬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보기>는 ‘움직이는 인형’의 특징이 담겨있다. 따라서 ㉣의 앞 문장 <그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람과 비슷한 점’에 대한 내용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기>의 ‘해체했다’는 내용은 ㉢ 뒤에 이어지는 <오장육부는 물론 뼈, 근육, 치

아, 피부, 털까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문 1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경건한 종교음악가’로서 천직을 다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라이프치히라고 생각하여 27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칸타타를 써 나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은 7년째에 라이프치히의 칸토르(교회의 음악감독)직으로는 가정을 꾸리기에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다른 궁정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걸맞게 ‘하늘이 이 위대한 작곡가의 죽음을 비통해하듯’ 천둥 치고 진눈깨비 흩날리는 가운데 장례식이 행해졌고 그 때문에 그의 묘지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 이러한 이야기는 빈 기상대에 남아 있는 기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만년에 엄습해 온 빈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걸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최근에는 도박벽으로 인한 빈곤설을 주장하는 학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 ① 바흐는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다.
- ② 바흐는 생애 중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하였다.
- ③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 빈의 날씨는 굿었다.
- ④ 모차르트의 작품 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

-정답 : ①

-[해설]

<가정을 꾸리기에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다른 궁정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를 통해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정리]

- ② <27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칸타타를 써 나갔다고 알려졌다.>를 볼 때, 칸타타를 작곡한 기간은 7년이 아니라 27년이다.
- ③ 모차르트의 사망 당일 날씨가 굿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빈 기상대에 남아 있는 기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를 볼 때,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④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작품의 수준과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비례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말년의 모차르트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문 11. 밑줄 친 한자가 문맥상 바르게 쓰인 것은?

1차 ‘휴머니스트 선언’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나치즘은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야

만성의 극한적인 ㉠型態를 드러내었으며, 여타의 전체주의 정책들 또한, 빈곤 상태를 ㉡槌放하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蹂躪했다. 더욱이 민주주의 ㉣整體를 가진 사회에서까지도 과학을 악용한 경찰국가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③

[해설]

※ 한자의 음과 어휘의 사용을 모두 살펴야 하는 문제다!

* 蹂躪(밟을 유, 짓밟을 린): 문맥상 <인권을 ‘짓밟다’>란 의미이므로,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의 의미를 갖는 '蹂躪(유린)'은 적절하다.

[오답 정리]

① ㉠ 型 거푸집 형, 態 모양 태(X)→ 行 다닐 행, 態 모양 태(O)

- 문맥상 <극한적인 양상을 드러내다>란 의미이므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행동하는 양상'을 의미하는 '行態(행태)'가 적절하다.

② ㉡ 槌放치 퇴(추), 放 놓을 방(X)→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O)

- 문맥상 <빈곤 상태를 '몰아내다.' 혹은 '해결하다.'>의 의미이므로,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의 '追放(추방)하다'가 오거나, 의미상 '해결(解 풀 해, 決 정할 결)하다.'가 오면 적절하다.

④ ㉣ 整 가지런할 정, 體 모습 체(X)→ 體 몸 체, 制 마를 제(O)

- 문맥상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사회>란 의미이므로, '體制(몸 체, 마를 제)'가 적절하다.

* 형태(型態), 퇴(추)방(槌放)은 선택지를 위해 만들어 낸 낱말이고, 정체(整體)는 '지압이나 안마 따위로 척추뼈를 바르게 하거나 몸의 상태를 좋게 함'의 의미를 갖는 낱말이다.

문 1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뒷뜰에 있는 옥수수나 따서 가져올게.
- ② 짐작건대, 그 사람은 야속다고 푸념만 한 것 같아.
- ③ 거름을 다 치내고 나서 어르신을 뵈러 길을 떠난대요.
- ④ 답을 얻기 위해 눈 덮힌 산야를 하염없이 헤매고 있을 거야.

-정답 : ②

[해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용언의 경우 <하>를 포함할 때 <하>의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 ㅈ, ㅊ'일 때는 '하'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짐작하건대→

짐작건대’, ‘야속하다고→야속다고’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정리]

① 뒤뜰(X)→뒤뜰(O)

- 합성어에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

③ 처내고(X)→쳐내고(O)

- 문맥상 '거름을 치우다'는 뜻이다. 그런데 '쳐내다'는 '불길이나 연기 따위가 쏟아져 나오다.'란 뜻이다.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 모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다.'의 뜻을 가진 '쳐내다'를 써야 한다.

④ 눈 덮힌(X)→눈 덮인(O)

- '덮다'가 피동사로 바뀔 때 붙는 접미사는 '-히-'가 아니라 '-이-'로 기본형은 '덮이다'가 된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① 어느 학교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② 손에 익은 연장이라서 일이 빨리 끝나겠다.

③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④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 : ③

[해설]

‘정부에서’는 단체무정명사가 주격조사로 ‘에서’를 취한 경우로 의미상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다. + 그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의 의미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어’가 된다.

※ ‘에서’는 단체명사와 사용되어 의미상 ‘이/가’로 사용되면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가 되고, 의미상 ‘처소’를 나타내면 부사어를 만드는 ‘부사격조사’가 된다.

[오답 정리]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②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어’.

④ 앞말이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부사어’.

문 14.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단혀진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② 저쪽 복도에 놓여진 화분은 엄청 예쁘구나.

③ 그 토의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결국 뭐지?

④ 장마로 인해 끊겨진 통신 선로가 드디어 복구되었군요.

-정답 : ③

-[해설]

‘받아들여진(받아들이+어지다 = 받아들여지다)’은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따위를 들어주다.’를 의미하는 동사 ‘받아들이다’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붙은 것이다. 따라서 이중피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정리]

나머지는 불필요하게 이중피동이 사용된 문장이다.

- ① 닫혀진 = 닫 + 히(피동) + 어진(피동)(X) → 닫힌(O)
- ② 놓여진 = 놓 + 이(피동) + 어진(피동)(X) → 놓인(O)
- ④ 끊겨진 = 끊 + 기(피동) + 어진(피동)(X) → 끊긴(O)

문 15. 다음 시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지아비 받 갈나 간 덕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① 夫婦愛而敬之, 相待如賓.
- ②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 ③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정답 : ①

[해설]

제시된 작품은 주세붕의 연시조 ‘오륜가’의 일부이다. 아내는 남편을 손님에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대하라는 교훈을 담은 노래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이다. ①의 한문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夫婦(부부)’라는 낱말을 읽어 의미의 관련을 찾을 수 있다.

※ 제시된 시조는 그 자체의 의미로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는 뜻’의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인 ‘舉案齊眉(거안제미)’의 의미와 관계가 깊다.

[현대어 해석]
<시조 본문>
지아비 받 갈러 간 곳에 밥광주리를 이고 가서
반상을 드리되 눈썹까지 맞춰 바칩니다.
진실로 고마운 분이시니 손님과 다르겠습니까.

<한문>
夫婦愛而敬之(부부애이경지): 지아비(남편)와 아내 아끼며 섬기어서
相待如賓(상대여빈): 서로가 손님처럼 맞아들여 대하다.

[오답 정리]

- ② 生我者父母(생아자부모):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知我者鮑子也(지아자포자야): 나를 알아주는 이는 바로 포숙이었다.
 ※ 管鮑之交(관포지교)가 나온 배경으로, '관중'이 자신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포숙'이었다고 말하여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 ③ 會桃李之芳園(회도리지방원): 복숭아꽃 오얏꽃 핀 화원에 모여
 序天倫之樂事(서천륜지락사):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펼치다.
 ※ 桃園結義(도원결의)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말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은 데에서 유래하여 '의형제를 맺음'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삼고신어초려지중) : 세 번이나 저의 초라한 집을 찾으시며
 諮臣以當世之事(자신이당세지사): 신에게 당시의 세상사를 물으셨습니다.
 ※ 삼고초려(三顧草廬)가 나온 배경으로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옥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담아,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문 16.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②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규범대로 움직여야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
- ③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④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화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떠날V밖에(X)→떠날밖에(O)

- 이 때의 '밖에'는 어미 '-ㄴ밖에'의 일부로 앞의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그밖에(X)→ 그V밖에(O)

-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조사이므로 앞의 명사에 붙여 써야 하고, '-밖에'가 '바깥,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을 뜻하면 '밖(명사) + 에(조사)'이기 때문에 앞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위 예문에서는 '그밖에'를 '그V밖에'로 띄어 써야 한다.

※ 어미 '-ㄴ밖에'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ㄴ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오답 정리]

- ① 말한V바: 말한 ‘것’ 즉 다른 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바’는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동창인바: ‘결과’를 나타내는 어미 ‘-ㄴ바’로 앞 말에 붙여 쓴다.

- ② 배운V대로: ‘배우다’라는 용언 뒤에 사용한 ‘대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
규범대로: 체언 ‘규범’과 사용된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 ④ 다할V뿐만: ‘다하다’라는 용언과 사용된 ‘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쓰고, 보조사 ‘만’은 붙여 쓴다.

젊은이들뿐만: 체언 ‘젊은이들’과 함께 쓰인 ‘뿐’은 조사이므로 체언과 붙여 쓰고 보조사 ‘만’과도 붙여 쓴다.

※ tip! ‘대로, 만큼, 뿐’은 용언과 쓰이면 ‘의존명사’로 기능하여 띄어 써야 하고, ‘체언’과 쓰이면 ‘조사’로 기능하여 붙여 써야 한다.

문 17. 다음 발화가 사용되는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도 경기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어(地域語)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및 구성 집단의 기질과 성격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영되고 변모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과 그 구성원의 정체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케 한다면 이는 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차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 지역의 구성원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말의 올바른 용법을 강조하는 강연에서
②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주장하는 학술 발표 대회에서
③ 지역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④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변론에서

정답 : ④

[해설]

위 글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어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의 말만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표준어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즉 특정 지역인 ‘서울’의 말이다. 따라서 ‘서울의 말’인 표준어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위와 같은 말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정리]

- ①, ② 위 발화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③ 지역어의 종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특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하는 것입니다.>와 같이 단언적 어조를 택한 것을 볼 때 소개하는 상황이 아닌 주장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뎀이 부리를
서로의 족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 ① 시적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의도가 엿보인다.
- ② ‘뜻’과 ‘낚’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절제된 태도로 대상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상한 새’는 자연이나 순수한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정답 : ②

[해설]

‘뜻’은 ‘인간의 인위성’을, ‘낚’은 ‘인간의 비정함’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이 두 시어는 모두 ‘순수, 자연, 생명’을 의미하는 ‘새’와 대립되는 시어이다. 따라서 ‘뜻’과 ‘낚’이 대조적인 의미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정리]

- ① 시적 화자는 시어의 대립을 통해 ‘생명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인위성, 파괴성’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시의 의미를 볼 때, 비판성이 강하지만 시의 내용만 볼 때는 직접적인 비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제된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상한 새’는 인간에 의해 ‘파괴된 순수’를 의미한다.

[심화 학습] 박남수, ‘새’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 성격 : 주지시, 문명 비판적, 상징적
- 제재 : 새(순수의 표상)
- 주제 : 순수한 삶의 옹호, 인간과 문명의 비판
- 특징 :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주제의 형상화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 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제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 (㉡) 이 경우 천황 아래 모두가 평등한 신민, 즉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다른 면에서는 ‘비국민’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 ‘국민’ 의식의 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민족적인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심리적인 포섭의 원리인 동시에 ‘비국민’으로서의 공포감을 동반한 강력한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였던 셈이다.

- | | | | | |
|---|-----|-----|-----|------|
| | ㉠ | ㉡ | ㉢ | ㉣ |
| ① | 사실 | 그런데 | 그리고 | 요컨대 |
| ② | 사실 | 게다가 | 또한 | 그러므로 |
| ③ | 실제로 | 또한 | 게다가 | 요컨대 |
| ④ | 실제로 | 그러나 | 그리고 | 그러므로 |

-정답 : ①

-[해설]

- ㉠ - ‘국민’의식이란 말이 생긴 시점과 달리 ‘국민’이란 단어가 일본 내에서 실제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시점은 청일 전쟁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실/실제로’가 모두 가능하다.
- ㉡ - ‘다만 ‘국민’이란 말은 ‘비국민’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는 의미로, 앞의 문장이 ‘국민의 의미의 실제적 함의’가 초점이었다가 **화제**를

‘국민이 주는 불안감’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그런데’가 적절하다.

- ㉔ - ‘일본은 그러했다. 한국도 그러했다’는 의미로 의미상은 ‘그리고/또한/게다가’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앞, 뒤가 대등한 관계이므로 ‘그리고’가 가장 적절하다.
- ㉕ - 앞 내용의 요점을 말한 부분으로, 내용상 ‘요컨대/그러므로’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원인과 결과를 이끄는 ‘그러므로’보다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요컨대’가 더 적절하다.

tip! 이 문제의 열쇠는 ‘그런데’가 쥐고 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화제의 전환이 ‘그런데’라는 초점을 이해해야만 답을 풀 수 있다. 정답은 ㉑이 된다.

문 20. 촌장의 태도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댁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떼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뗏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이강백, 파수꾼 중에서 -

- ① 指鹿爲馬
 ② 釣而不網
 ③ 隔靴搔癢
 ④ 牽強附會

-정답 : ④

-[해설]

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며 ‘다’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④ 牽強附會로 촌장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 건강부회(牽 끝 건, 強 굳셀 강, 附 붙을 부, 會 모일 회) :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

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

-[오답 정리]

① 지록위마(指 가리킬 지, 鹿 사슴 록, 爲 할 위, 馬 말 마)

①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①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조이불망(釣 낚을 조, 而 말 이을 이, 不 아닐 불, 網 그물 망)

-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 취할 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

③ 격화소양(隔 사이뜰 격, 靴 신 화, 搔 긁을 소, 癢 가려울 양)

-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히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 = 격혜소양(隔鞋搔癢) · 격화파양(隔靴爬癢).